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8월 25일(주일) 제1259호



##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Harvest 2019'

###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 온누리M미션, 봉사자 120명 및 후원물품 모집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Harvest 2019'가 막 오른다. 9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Level up'을 주제로 진행된다. Harvest 2019는 온누리M미션에서 실시하는 행사로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아주 특별한 축제다. 러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미얀마, 몽골,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이주민 550여 명과 봉사자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주민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

지 참석해서 이주민들과 함께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Harvest 2019에서는 세 번의 예배, 간증 나눔, 문화공연, 레크리에이션, 바비큐 파티, 국가별 모임, 성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도육한 목사(양지 온누리교회), 은 목사(안산M센터 베트남어예배 담당), 레비 아르난 목사(필리핀 그린힐크리스천교회 담임) 등이 강의한다.

Harvest 2019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봉사자 120명을 모집한다. 예배, 행사장 미화, 숙소 세팅, 식사 준비, 의료, 통역, 접

수, 사진영상, 차세대 사역 등을 섬겨줄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8월 28일(수)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드림홀과 9월 4일(수) 오후 6시 양재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는 오늘(25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물품 후원도 받고 있다. 빵(식빵, 크루아상, 베이글),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콘플레이크, 믹스커피 등 750인분, 이주민을 위한 추석 선물 등이 필요하다.

문의: 자원봉사자 010-9958-6532

물품후원 010-4732-4371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 권한승 기자 kcs123@onnuri.org

### 시니어 아카데미 9월 4일 개강

#### 서빙고 두란노홀, 양재 드림홀

시니어 아카데미가 9월 4일 개강한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65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다. 자녀들이 부모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니어 아카데미는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

가신청은 당일 접수하거나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양재 온누리교회 시니어 아카데미는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현장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서빙고 02-3215-3263

양재 02-570-7469

### 9월 1일 도곡 3부 예배 신설

도곡교육관 주일 3부 예배가 9월 1일 첫 예배를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이상준 목사가 사회를 본다. 도곡 3부 예배는 매주 오후 1시 50분 속명여고 강당에서 드린다. 강남C공동체가 예배를 섬긴다. 방송실 자막 등을 섬겨줄 봉사자도 필요하다. 문의: 02-570-7443~5

###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개강

#### 8월 25일~9월 15일 개강예배

온누리 공동체가 2019년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한다. 오늘(25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동체별로 하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표 참조). 올해 하반기에도 온누리 공동체는 풍성하고 의미 있는 행사들을 개최한다. 9월 22일 추수감사주일, 10월 6일 온누리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 10월 16~18일 부흥축제, 11월 6~7일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11월 30일 권사 및 안수집사 임직식, 12월 7일 장로장립식, 12월 9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2019~20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서빙고        |        |           |       |
|------------|--------|-----------|-------|
| 날 짜        | 공동체    | 장소        | 시간    |
| 8월 27일(화)  | 동대문중앙  | 비전홀       | 18:00 |
| 8월 29일(목)  | 서대문    | 두란노홀      | 18:00 |
| 8월 29일(목)  | 마포     | 한동홀       | 18:00 |
| 8월 29일(목)  | 양천     | 비전홀       | 18:00 |
| 8월 30일(금)  | 신용산    | 두란노홀      | 18:00 |
| 8월 30일(금)  | 가정사역   | 한동홀       | 18:00 |
| 8월 30일(금)  | 동작     | 비전홀       | 18:00 |
| 8월 31일(토)  | 광명     | 하안 장로교회   | 16:00 |
| 9월 1일(주일)  | 강촌     | EM전시관     | 13:30 |
| 9월 1일(주일)  | 성북     | EM전시관     | 17:00 |
| 9월 1일(주일)  | 북누리    | 북누리비전센터   | 17:00 |
| 9월 1일(주일)  | 일산     | 일산비전센터    | 19:30 |
| 9월 2일(월)   | 이수     | 한동홀       | 18:00 |
| 9월 3일(화)   | OCC    | 한동홀       | 18:00 |
| 9월 3일(화)   | 서빙고    | 시온홀       | 18:00 |
| 9월 5일(목)   | 영등포구로  | 두란노홀      | 18:00 |
| 9월 5일(목)   | 이촌     | 한동홀       | 18:00 |
| 9월 5일(목)   | 관악금천   | 비전홀       | 18:00 |
| 9월 5일(목)   | 노원     | 상현교회      | 19:00 |
| 9월 6일(금)   | 천안사역   | 두란노홀      | 18:00 |
| 9월 6일(금)   | S브릿지   | 한동홀       | 18:00 |
| 9월 6일(금)   | 한강     | 비전홀       | 18:00 |
| 9월 6일(금)   | 성동광진   | EM전시관     | 18:00 |
| 9월 7일(토)   | 강서     | 불광동 팀비전센터 | 10:00 |
| 9월 8일(주일)  | 김포     | EM전시관     | 13:30 |
| 9월 8일(주일)  | 여의도    | EM전시관     | 17:00 |
| 9월 8일(주일)  | 고양은평   | 예수인교회     | 17:30 |
| 9월 9일(월)   | 충정로    | 두란노홀      | 18:00 |
| 9월 10일(화)  | 용산     | 한동홀       | 18:00 |
| 9월 15일(주일) | 특별한 초대 | 순형홀       | 17:00 |

| 양재        |        |            |       |
|-----------|--------|------------|-------|
| 날 짜       | 공동체    | 장 소        | 시 간   |
| 8월 27일(화) | 송파A    | 화평홀        | 19:00 |
| 8월 29일(목) | 분당A    | 화평홀        | 19:00 |
| 8월 30일(금) | 강남C    | 화평홀        | 19:00 |
| 8월 30일(금) | 강남E    | 온유홀        | 19:00 |
| 8월 30일(금) | 서초C    | 드림홀        | 19:00 |
| 9월 3일(화)  | 강남A    | 화평홀        | 19:00 |
| 9월 3일(화)  | 송파B    | 온유홀        | 19:00 |
| 9월 4일(수)  | 서초B    | 화평홀        | 19:00 |
| 9월 4일(수)  | 서초A    | 온유홀        | 19:00 |
| 9월 4일(수)  | 강남B    | 드림홀        | 19:00 |
| 9월 4일(수)  | 강남D    | 도곡 기쁨홀 온유홀 | 19:00 |
| 9월 5일(목)  | 도곡     | 화평홀        | 19:00 |
| 9월 6일(금)  | 양재     | 화평홀        | 19:00 |
| 9월 6일(금)  | 서초D    | 드림홀        | 19:00 |
| 9월 6일(금)  | POINT5 | 온유홀        | 20:00 |
| 9월 7일(토)  | 경기A    | 화평홀        | 16:00 |
| 9월 7일(토)  | 분당B    | 드림홀        | 17:00 |
| 9월 8일(주일) | 하모니    | 두란노홀       | 16:30 |
| 9월 8일(주일) | 푸른누리   | 화평홀        | 16:00 |

| 캠퍼스          |           |               |       |
|--------------|-----------|---------------|-------|
| 9월 6일(금)     | 부천 화평     | 비전홀           | 19:00 |
| 9월 6일(금)     | 부천 소망     | 경천홀           | 19:30 |
| 9월 6일(금)     | 부천 사랑     | 드림홀           | 19:30 |
| 9월 8일(주일)    | 부천 믿음     | 기쁨홀           | 16:00 |
| 9월 8일(주일)    | 부천 화락     | 비전홀           | 16:00 |
| 8월 31일~9월 1일 | 수원 동누리    | 강원도 홍천 APS연수원 | -     |
| 9월 6일(금)     | 수원 남누리    | 비전홀           | 20:00 |
| 9월 6일(금)     | 수원 북누리    | 본당            | 20:00 |
| 9월 7일(토)     | 수원 서누리    | 용인시 처인구 다누리골  | 10:00 |
| 9월 4일(수)     | 대전 연합     | 본당            | 19:30 |
| 9월 6일(금)     | 남양주 연합    | 본당            | 19:30 |
| 9월 8일(주일)    | 평택 연합     | 본당            | 16:00 |
| 8월 30일(금)    | 인천 미추홀공동체 | 제너섬 7층 사랑홀    | 19:30 |
| 8월 30일(금)    | 인천 서누리공동체 | 제너섬 7층 믿음홀    | 19:30 |
| 8월 30일(금)    | 인천 동누리공동체 | 제너섬 8층 소망홀    | 19:30 |
| 9월 5일(목)     | 강동 믿음공동체  | 본당            | 20:00 |
| 9월 6일(금)     | 강동 말씀공동체  | 본당            | 20:30 |
| 8월 25일(주일)   | 양지 연합     | 박모세홀(지하층)     | 14:30 |





## 책 읽어주는 목사

## 마음의 정원



〈꽃삽〉

이해인 저 | 샘터사 | 13,000원

제작년 초여름 A형 간염으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한 선생님께서로부터 받은 에세이 시집 〈꽃삽〉을 입원기간 틈틈이 읽었다. 한 편 한 편의 시(詩)와 글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적잖이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조그만 꽃삽 하나 들고 작은 꽃밭을 손질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하루’라는 정원을 손질하는 것이라고 한 이해인 수녀는 작고 양중맞은 이 꽃삽이야말로 ‘하루

’라는 꽃밭에 꽃씨 하나 띄울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사랑이라고 힘주어 강조한다. 그 꽃삽에 의해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의 이 모저모가 독자의 마음도 요모조모 보듬는 이 책은 총 여섯 개의 꽃씨를 품고 있다.

#창을 사랑하며 #봄이 오면 나는 #그 사람의 향기 #작지만 좋은 묵 #책을 읽는 기쁨 #심대들을 위하여... 이미 문화현상으로 진화한 SNS 검색용 메타데이터인 ‘해시태그(hashtag)’로도 훌륭한 조합을 이루고 있는 이 꽃씨들은 바지런한 일상을 살아내면서도 하늘 소망에 시선이 닿아 있는 작가의 면모를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꽃삽〉에 수록된 시 〈바닷가에서〉는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수녀원에서 사는 작가의 일상이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옥상에서 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 행복을 항상 새롭게 감사하며 푸른 바다를 마음에 들어 놓는 작가의 여유로움이다.

오늘은/맨발로/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철석이는 파도 소리가/한 번은 하느님의  
통곡으로/한 번은 당신의 울음으로 들렸습니다//

삶이 피곤하고/기댈 데가 없는 섬이라고/  
우리가 한 번씩 꾸짖힐 적마다/쓸쓸함의 해  
초도/더 깊이 자라는 걸 보았습니다//

말뭉치 들어오며 하는 말/감당 못할 열정

으로/삶을 끌어안아보십시오/떨물이 나가  
면서 하는 말/놓아버릴 욕심들은/미루지 말  
고 버리십시오//

바다가 모래 위에 앉질러놓은/많은 말을  
다 전할 순 없어도/마음에 출렁이는 푸른 그  
리움을/당신께 선물로 드릴게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슬픔이 없는 바닷가  
에서/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로/춤추는 물새  
로 만나는 꿈을 꾸며/큰 바다를 번쩍 들고  
왔습니다//

오감(五感)으로 바다를 체험하는 작가가 부럽다. 사각거리는 바닷가 모래알을 맨발로 느끼는 촉각(觸覺)과 파도소리를 누군가의 울음소리로 치환시키는 청각(聽覺)은 이채롭다. 드나드는 썰물을 바라보며 열정과 욕심을 넘나드는 나를 보게 하는 시각(視覺)은 이젠 차라리 경이롭다. 짝조름한 바닷물의 미각(味覺)과 비릿한 바닷가의 후각(嗅覺)은 독자에게 상상으로 맡겨 놓은 채 마음만 먹으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작가의 삶이 부럽다.

아무의 눈에도 잘 안 띄는 봄까치꽃을 라일락과 동등하게 만들고, 요요한 동백꽃도 민들레와 조화를 이루게 하며, 들꽃이 피어나는 숨결에도 귀 기울이는 기쁨과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놀라움이 이 책 곳곳에 숨어 있다. 바다에

서든, 산에서든, 일상에서든 우리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생각(生覺)해야 한다.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만의 언어를 창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꽃삽은 우리의 생각을 다듬고 뒤집고 옮기는 데 유용하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정원이 있다. 오감으로 넘쳐나는 마음의 정원이 있다. 그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한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린다. 작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곧잘 꽃씨 선물을 한다. 선물을 받았든 바람 타고 날아들어온 흩 씨든 우리네 마음 속 정원에는 씨앗이 내려앉는다. 이미 우리에게 좋은 씨앗이 정원에 심겨져 있지 않은가. 다만 우리들의 꽃삽으로 이 좋은 씨앗이 뿌리 내리기를, 잎이 나고 꽃이 피어나기를, 열매 맺기를 참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아가서에도 등장하는 포도원을 망치려는 작은 여우들(아 2:15)이 지금도 내 마음의 정원을 노리고 있으니 말이다.



곽상학 목사  
(온누리교회 협동목사)



## Q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답: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햇빛과 공기, 하루 24시간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락 하셨습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릴 때 하나님은 믿는 자의 눈과 발에만 비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의 눈과 발에는 비를 주시지 않으시던가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공기, 햇빛, 바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전도를 하다보면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렇게 강력범죄자들을 그냥 두느냐” 혹은 “왜 태풍이나 쓰나미, 지진 등으로 착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하거나 죽게 두느냐”라는 질문이다. 사람들은 범죄나 자연재해 등을 보며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기는 하느냐”고 물을 때도 있다. 이런 질문을 던져오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는 내 속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당황시킬지도 모르는 그들의 질문을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햇빛과 공기, 하루 24시간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릴 때 하나님은 믿는 자의 눈과 발에만 비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의 눈과 발에는 비를 주시지 않으시던가요? 우리는 나무에 달린 나뭇잎이 흔들리고, 빨랫줄에 걸린 빨래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낍니다. 매순간 호흡하며 이곳에 공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공기, 햇빛, 바람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창 1:27)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바깥 말하면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자신

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마음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세요?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동화 목사  
(경기A공동체)



##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감사는 우리 삶을 치유하고,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감사는 받은 것을 고마워하는 감정입니다. 무엇인가를 베풀어준 이에게 받은 것을 고마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고통 받는 열 명의 나병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병환자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15~16절).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 소수의 사람만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는 표현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섭섭함, 원망, 미움은 흘러가는 물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살전 5:18).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찾아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만이 찾아옵니다.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 속에서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빼앗기게 됩니다.

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선물을 나누십시오.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준 상대에게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 신비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18~19절).

### 감사는 선택이다

둘째, 감사는 선택입니다. 사마리아인 나병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빨리 가족에게 알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평하는 길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내게 찾아오는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생각, 이성, 판단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사 55:8~9).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선택으로, 묵상으로 감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경륜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 감사는 상황을 뛰어 넘는다

셋째,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합격해도 감사하고, 떨어지기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십시오.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도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약한 데서 강해지는 역설의 하나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고후 12:9-10).

감사는 상황을 뛰어 넘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약점도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든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비포장도로든 좁은 길이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한다면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이 잘 되고 넓은 길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길과 나쁜 길은 목적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을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사명을 찾고,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기적과 같이 매일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쓴 물이 단 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선택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은 적은 물이지만 그 마중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수는 어마어마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창고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와 축복을 주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불행을 끝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문을 여는 형통의 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노트를 쓰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는 내용 세 가지 이상을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 연말까지 해보십시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또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로 삶을 치유하기를 기도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평화봉사단  
러시아 브라티야공화국

##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선하게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청년들 그리고 타 교회 교인들이 모여 ‘평화봉사단’이라는 아웃리치팀을 만들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 브라티야공화국을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는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였다.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는 ‘울란우데’였다. 현지 교회와 함께 ‘전도초청잔치’를 준비했다. 우선 거리에 나가 현지인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줬다. 초청장을 나눠주고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내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러자 그 두려움과 떨림이 점차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팀원들이 초청장을 열심히 돌려서 그런지 3일 동안 만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초청잔치에 많이 참석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 주일날 우리 팀원들은 결신한 분들과 함께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에서 교인들이 간증하는 시간에 한 현지인 여성 성도가 “전도초청잔치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다. 우리의 사역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증이 끝난 후에는 결신한 분들을 소개하고 예배에 참석한 어린이들도 축복해줬다. 우리가 방문한 현지 교회는 “우리가 진행해 온 사역을 보면서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지난해에는 도움이



평화봉사단이 러시아 브라티야공화국에서 미용봉사를 하고 있다.

필요한 사역지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고 한다. 울려름에는 장장 5,000km에 이르는 지방전도를 계획하고 있었다.

아웃리치 8일째부터는 일찍 귀국하는 팀, 어린이팀, 지방전도팀으로 나뉘어 사역을 진행했다. 여성 성도들은 지방전도팀에 속해 있었다. 지방전도팀은 울란우데에서 시외버스로 4시간 달려 ‘키징카’에 도착했다. 키징카는 19세기에 한 선교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유로 현지인들에게 돌 맞아 순교한 곳이다. 그곳에 사역자가 떠난 이후 방치된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의 교인은 단 5명뿐이었다. 키징카에 도착하자마자 5명의 성도 중 한 사람인 ‘지린도마’가 소개해주는 숙소로 이동했다. 지린도마는 자신의 오빠가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우리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먼지를 뒤집어 쓰며 바닥을 열심히 청소했다. 모든 시설들이 사용하

기 불편할 정도로 지저분했다. 이틀 동안 이곳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셨다. 곧 모든 걱정이 떨어지면서 잠도 잘 자고, 배탈도 안 나고, 아주 잘 지냈다. 우리는 지린도마의 오빠 집에 머물면서 미용봉사와 의료사역을 하며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현지인들은 대부분 불교 신자라서 그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정이 굳고 어두웠다.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그들을 찾아갔을 때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복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복음을 들은 한 여성분은 본인의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잊지 않고 기도 해달라고 연신 부탁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다가왔는지 모른다. 팀원들과 목사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현지인들과 5명의 교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브라티야공화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셨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선하게 우리를 사용하셨다.



김선호 성도  
(성동광진공동체)

CMN 시온팀  
코트디부아르

## 두려움이 충격과 감동, 은혜로

‘언젠가 아웃리치를 가자!’라는 마음을 간직하며 지냈다. 그러나 직업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주일예배만 드렸다. 그렇게 15년을 보냈다. 일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내안의 공허함은 날로 커져갔다. 6월 어느 날,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아웃리치 발대식 광고를 들었다. ‘지금이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감동이 있었다. 하지만 공동체가 없는 나는 아웃리치를 갈 수 있는 경로나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친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온누리신문에 나온 아웃리치 모집 광고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다. CMN 시온팀의 코트디부아르 의료선교였다. 의료선교팀인데 일반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웃리치 경험이 없는 나에게 아프리카라니. 덜컥 겁이 났다. 일단 팀장님께 연락을 해보았다. 팀장님은 “처음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해주신다”고 하셨다. 팀장님과의 통화는 나도 갈 수 있다는 확신과 평안을 가져다주었다.

아웃리치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교회꾸미기’를 준비하게 되었다. 평소 하는 일(아트디렉터)과 비슷했기에 내 역할이 커졌다. 역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역 첫날,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긴장이 되었다. 그들 모두 나만 바라보는 듯했다. 그 시선과 분위기가 압도적



CMN 시온팀은 코트디부아르에서 의료사역과 어린이사역을 진행했다.

이었고 떨렸다. 덜컥 겁이 났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껴졌고 성급히 여길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없어졌다. 그 와중에 교회 꾸미기를 시간 안에 끝내야 했다. 그렇게 오전이 흘러가고, 오후에는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이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기도해주셨다.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 순수하고 맑았다. 앞에 나오자마자 무릎부터 꿇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느껴지고 눈물이 흘렀다.

첫날은 두려움과 충격, 감동과 은혜, 절망이 공존했다. 평소에 느끼지 못한 기쁨과 수많은 감정으로 혼란스럽게 마무리되었다. 둘째 날 아침, 팀원들이 처음 아웃리치를 온 내가 걱정이 되셨는지 안부를 물어주셨다. 마음이 울컥하면서 평안함을 느꼈다. 큐티를 하면서 이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았다.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주시며, 나를 쓰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내가 앞섰던 것 같고 미리 두려워했던 것 같다. 두 번째 사역지를 갔는데 전날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역 시작 전에 그들을 향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불렀다. 가사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음에 새겨졌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곳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눈물이 흘렀다. 그 이후 모든 사역들이 순탄하게 흘러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하나님의 만지심, 축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사역을 하러간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듯했다. 두렵고 힘든 마음이 풍족한 은혜로 바뀌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완벽하게 일하려던 나에게 첫 번째 아웃리치는 나를 온전히 버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회였다.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현실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특별함이 있었다. 아웃리치 사진들을 보면서 여전히 마음에 울림이 있다. 내년 아웃리치를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 기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따뜻하게 배려해주신 CMN 시온팀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전한다.



태수연 자매  
(CMN 시온팀)

서초B공동체  
몽골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연속테러로 인해 그곳으로 가려던 공동체 아웃리치가 전면 취소되었다. 내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아웃리치 참가를 권유하던 송기선 선교팀장님을 더 이상 어색한 웃음으로 대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몇 주 후, 몽골 아웃리치 계획이 다시 공지되었다. 아웃리치를 가고 싶어 하는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몸이 약해서 4박 6일은 무리예요. 게다가 오고 갈 때 모두 밤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잘 테니 그냥 국내 아웃리치를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효는 딱 3일이었다. 아내가 공동체 단체채팅방에 “저 혼자라도 갑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별수 없이 나도 같이 따라 가게 되었다. 나의 첫 번째 해외 아웃리치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드디어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다. 밝은미래학교 교장 허성태 선교사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허 선교사님은 2002년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당시 변창했던 사업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남편 고재형 선교사님과 몽골에 오셨다고 했다. 몽골국제학교를 설립하고, 10년 동안 교수사역을 거쳐 2011년부터는 밝은미래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셨다. 지금은 밝은미래학교가 이전할 비오지역 캠퍼스 건립에 온 힘을 쏟고 계신다. 밝은미래학교는 외국어 특성화 학교로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몽골

나도 이제 휴가를 아웃리치에  
사용해도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

몽골 밝은미래학교에서 열린 러브소나타에서 몽골인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가장 동경하는 국가인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사역지는 울란바토르 외곽에 자리잡은 보건소와 비오캠퍼스 강당이었다. 의료팀, 약무팀, 미용팀, 수기팀, 안경팀, 네일아트팀, 어린이팀은 보건소에서, 문화팀은 비오캠퍼스에서 러브소나타 집회를 진행했다. 내과,

산부인과, 치과, 가정의학과로 구성된 의료팀의 진찰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건물 밖까지 이어진 긴 줄이 이를 동안 이어졌다. 이번에 참가한 의료진들은 대부분 휴가를 반납하고 아웃리치에 왔다고 했다. 그중 한 분은 10년 이상을 여름휴가를 반납한 채 봉사하러 오고 있다고 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다. 귀중한 휴가를 그렇게 쓰다니. 그들

이 이상한 사람들로 비춰졌다.

둘째 날 저녁, 지역주민들을 위한 러브소나타 집회가 있었다. 비오캠퍼스 강당에 150명이 모였다. 더운 날씨에 냉방이 전혀 안 되는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도중에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가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했고, 기도도 열심히 따라했다. 그래서일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석자 150명 중에서 무려 72명의 결신자가 나왔다. 할렐루야. 행사를 마치고 선교사님도 감격하시며 “자기가 본 집회 중에서 가장 멋지고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말씀하셨다.

아웃리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득 몇 년 전 지인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세상에는 모임의 총무를 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세상에는 아웃리치에 참가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리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1년 중 유일한 휴가를 아웃리치에 사용해도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오, 주여!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박준영 집사  
(서초B공동체)이촌공동체  
몽골

몽골에서 맞이한 첫 아침 큐티 모임 때 목사님께서 “이번 아웃리치에서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했었다. 우리는 다르함 몽골인 목회자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에서 대단히 어렵게 45인승 버스를 구해 졸작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대자연 보고 그 숨씨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버스가 후진을 시작했다.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았다. 옆에 앉은 남편이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켜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못했다. 인터넷, 전화도 안 되고, 운전기사님, 선교사님도 길을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이정표나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 비포장에도 비까지 내려 깊이 패인 도로, 심지어 위험천만한 초원 한가운대를 가로질러 갔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갇혀 40년 동안 해매는 상황이 상상되었다.

다른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의외로 조용했다. “이렇게 해봐라, 저리로 가보자, 위험하다” 등의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러는 분이 없었다. 다만 시간이 점점 지나자 조금씩 웅성 웅성해졌다. 그때 75세 권사님께서 “함께 찬양해요”라고 하시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시기 시작했다. 모두가 왕이신 아버

## “그들의 눈에서 더 아름다운 별을 보았음을”



이촌공동체 지체들이 몽골인들을 위해 안아주며 기도하고 있다.

지를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감옥에서 찬양했던 사도 바울의 근처에는 갈 수 있겠다 싶어 팀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31명이면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이 있을 텐데 모두가 처음 맞는 위기 앞에서 하나로 반응했다.

졸작에서 나올 때는 출발 직전에 버스 연료가 떨어졌다는 당황스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 전날 길을 헤맨 것, 차량을 점검하지 않은 기사에게 비난할 법한데 아무도 그를 그렇게 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료가 오기를 2시간가량 기다렸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눈을 돌려 그곳의 아름다움을 보며 무엇보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 우리는 기사님을 이해하고 사랑했다. 돌아올 때쯤에 기사님은 교회에 다니기로 했다. 이 한 영혼 때문에 31명이 몽골에 보내진 건 아니었을까?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는 아웃리치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전에 생각

한 아웃리치는 내가 선교현장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고, 주고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아웃리치에 나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어쩌면 주님의 마음을 잘 품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무리 밤이 늦어도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며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 주셨던 목사님, 40일 기도로 미리 영적 전쟁을 준비해주신 장로님, 위기의 때에 주님을 찬양하게 이끄신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카메라에 담아 주시느라 수고하신 장로님, 동분서주 뛰어나신 팀장님 부부, 공동체 대표로 모두의 안전을 신경 쓰신 장로님 부부, 회계, 찬양인도, MK사역, 인형극과 위심으로 섬긴 분들, 약한 사람을 챙기고, 양보하고 섬긴 모두가 머리되신 예수님께 속한 한 지체됨을 보았다.

몽골 여름 하늘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별은 못 보았지만 모든 상황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우리 모든 지체들의 눈에서 더 아름다운 별을 보았음에 감사한

이경미 성도  
(이촌공동체)

여성사역본부장 조호영 목사와 함께



## “하루에, 2분씩, 세 번 기도합시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행전 1.2.3’

결코 끝나지 않는 마리아들의 또 하나의 기도행전이 시작된다. 하루 2분씩, 세 번 시간을 정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행전 1.2.3’이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는 마리아행전 1.2.3을 “주 마리아행전과 월 마리아행전으로 진행되던 마리아들의 기도모임을 날마다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마리아행전 1.2.3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호영 목사와의 일문일답.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마리아행전 1.2.3’이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마리아행전 1.2.3’은 하루에, 2분씩, 세 번 시간을 정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들을 위한 기도운동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행전은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행전 1.2.3은 기도의 지경을 삶의 자리로까지 넓히는 또 하나의 기도운동입니다. 현재 여성사역본부에서는 여성사역팀 리더십들과 올해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에서 마리아행전 1.2.3에 동참하기를 신청하셨던 성도님들께 매일 아침 기도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품고 매주, 매일 실시하던 기도모임을 이제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기도모임을 개인의 삶의 자리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행전 1.2.3’과 기존 마리아행전 기도모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마리아행전 1.2.3에 참여하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월 마리아행전과 주 마리아행전의 경우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정해

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행전 1.2.3은 날마다 공유되는 기도문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행전 1.2.3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공유되는 기도문으로 짧은 시간동안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신자도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행전 1.2.3에서 보내주는 기도문을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들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행전 1.2.3의 또 다른 유익은 하나

에, 북한, 가난하고 어려운 자, 병든 자, 정치인, 문화 등 기도가 꼭 필요한 다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행전 1.2.3’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는 암으로 투병 중이신 권사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투병 중에 계시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없던 권사님께서 마리아행전 1.2.3 기도문을 받아보시며 함께 기도하고 계

들을 들을 때면 2020년 열릴 마리아행전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매일 올려드리는 작은 기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마리아행전 1.2.3에 동참하셔서 기도의 불씨를 피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시대를 바라보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시대를 마주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면 우리는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리아행전 1.2.3은 2020년 마리아행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1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여성사역팀으로 연락주시면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마리아행전 1.2.3을 계기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마리아행전 1.2.3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게 되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게 되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주민, 동성

신다는 소식이었습니. 또 한 성도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다가 마리아행전 1.2.3 기도문을 받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하다보니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고,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

#### 마리아행전 1.2.3 기도문 예시

나의 신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1)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환란 중에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한반도 땅에서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고 근면한 이들이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2)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해방 후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

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를 간구합니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가정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과 악한 것으로부터 다음세대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억압 받는 북한 주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일하며, 악한 자들을 돕는 정의로운 이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국가의 경제, 안보, 외교 전문가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 같은 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도록 모든 국민들이 분별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 부정과 불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이들이 우리의 대표가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기존의 정치인 중에서 부정부패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낙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을

탐하며 악한 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억압하는 자들은 낙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행하는 자들은 낙선되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삶은 정의롭지 못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낙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깨려는 자들은 낙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4)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모든 열방에 주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문의: 김남정 사역자 010-5286-0472

# “청소년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



위기 청소년들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주거, 의료,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가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개소했다. 이로써 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는 군포하노남자중장기쉼터, 하나로꿈학교, 꿈의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운영하게 됐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같은 시설을 퇴소하고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자립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주거, 의료, 취업, 독립생활, 지역자원 및 후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호욱 상임이사는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0일(화) 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식에는 정호욱 상임이사, 조항진 장로, 김형근 관장(온누리청소년센터), 조학수 국장(경기도 평생교육국), 박옥분 위원장(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문의: 031-399-7997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양재 주차 관제 시스템 운영

8월 26일 시범운영, 9월 16일 전면시행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주차 관제 시스템을 주중에 운영한다. 8월 26일부터 3주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전면시행 한다.

등록 차량(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중 사전 차량번호 등록)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지만 4시간 주차를

권장한다. 미등록 차량은 방문증을 보안관리실에서 작성한 이후 주차가 가능하며, 단순 방문은 1시간, 예배 및 스쿨 참석자는 4시간 주차할 수 있다. 관제 시스템 주차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 및 수시 차량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 윤문 간사 02-570-7430

## 온누리전도학교 21기 훈련생 모집

9월 22일부터 10주 동안 서빙고 홍보관

서빙고 온누리전도학교 21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9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일 오전 8시 5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10주 동안 진행된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는 온누리교회 공식 전도지 <최고의 행복> 활용법 안내, 반대질문과 접촉점 강의,

현장실습 등을 주제로 강의와 실습이 병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22일(주일)까지 아이스쿨이나 통합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4만 원(교재비, 현장전도 실습비 제반비용 포함).

문의: 010-3226-4364

## 29기 전도폭발훈련학교 훈련생 모집

전도폭발훈련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9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주간반 오전 10시, 저녁반 저녁 7시 20분에 진행된다. 전도폭발훈련은 1~4단계로 진행된다. 학기별로 1단계씩 총 2년이 소요된다.

전도폭발훈련에서는 전도 강의, 그룹활동, 현장실습 등이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9월 9일(월)까지 아이스쿨이나 주일 통합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

문의: 010-2850-1021(주간)

010-3212-2664(저녁)

##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모집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프로그램이 9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간단한 심리검사와 진단, 부부갈등 해결 Tool 등을 소개

하면서 부부가 하나 되도록 돕는다.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을 꿈꾸는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10-9041-5538

## 제이흠 ‘위탁 세미나’ 개최

사회선교부 입양 커뮤니티 제이흠에서 지난 주일(18일) 위탁세미나를 개최했다. 입양 가족, 요보호아동(부모양육으로부터 단절된 아이) 위탁에 관심 있는 성도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오창화 팀장(제이흠)은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 입양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회복학교 ‘기쁨의 샘’ 참가자 모집

9월 4일 서빙고 시온홀

회복사역팀에서 회복학교 ‘기쁨의 샘’ 참가자를 모집한다. 회복학교 기쁨의 샘은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12주 동안 진행된다.

심리치료와 성경적 치유 검토, 자

의식(自意識)에서 주의식(主意識)으로, 일반 기도에서 말씀 기도로, 인지적 반응에서 성경적 상황반응으로, 창조의 기쁨, 아름다움, 하나님 형상, 타락: 신(神)이 된 인간, 우상숭배와 언어 혼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8월 28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 5만 원(교재비 별도). 문의: 010-3787-1584

##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
| 1136838 | 최은영          | 인천 소망  | 1136881 | 손화성 | 동작    | 1136909 | 신용식 | 수원 동누리 | 1136937 | 김신석            | 서초B    |
| 1136839 | 금해정          | 대전 남누리 | 1136882 | 안선미 | 분당B   | 1136910 | 조윤영 | 송파B    | 1136939 | 장유니스           | 인천 소망  |
| 1136840 | 이상희          | Point5 | 1136883 | 이현미 | 양재    | 1136911 | 박양옥 | 부천 소망  | 1136944 | 이기환            | 수원 남누리 |
| 1136841 | 조호현          | 양재     | 1136884 | 박민규 | SNS   | 1136912 | 염경환 | 중종로    | 1136945 | 최영민            | 대전 동누리 |
| 1136842 | 김은영          | J4U    | 1136885 | 박혜란 | SNS   | 1136913 | 양상철 | 강동 말씀  | 1136947 | 선임수            | 영등포구로  |
| 1136843 | 홍지인          | 허브     | 1136886 | 김혜린 | SNS   | 1136914 | 왕정분 | 강동 말씀  | 1136948 | 이예원            | SNS    |
| 1136844 | Ralph Connor | 평택     | 1136887 | 박소현 | SNS   | 1136915 | 강태구 | 허브     | 1136949 | 안근희            | SNS    |
| 1136845 | 이재봉          | 송파A    | 1136888 | 정소양 | SNS   | 1136916 | 김명훈 | 허브     | 1136950 | 서진             | Pole2  |
| 1136859 | 박혜연          | 여호수아   | 1136889 | 김경미 | SNS   | 1136917 | 공민정 | 허브     | 1136951 | 이창훈            | OEM    |
| 1136861 | 김은희          | 부천 믿음  | 1136890 | 표세현 | SNS   | 1136918 | 임수연 | J4U    | 1136952 | Yoon Kim       | OEM    |
| 1136862 | 김현희          | 영등포구로  | 1136891 | 유사라 | SNS   | 1136919 | 김영오 | 여호수아   | 1136953 | 김동현            | 분당A    |
| 1136864 | 서지형          | 천양사역   | 1136892 | 유하영 | SNS   | 1136920 | 박다솔 | 여호수아   | 1136954 | 조윤미            | 분당A    |
| 1136865 | 김정숙          | 일산     | 1136893 | 이요한 | SNS   | 1136921 | 장성은 | 여호수아   | 1136956 | 김지인            | 일본어예배  |
| 1136866 | 강성윤          | 요셉     | 1136894 | 서상열 | SNS   | 1136922 | 윤다영 | 여호수아   | 1136957 | 김주형            | 일본어예배  |
| 1136867 | 정성희          | 요셉     | 1136895 | 김민지 | SNS   | 1136923 | 이지현 | J4U    | 1136958 | 윤영철            | 인천 소망  |
| 1136868 | 김기성          | 요셉     | 1136896 | 최지현 | SNS   | 1136924 | 구지원 | J4U    | 1136959 | 이효경            | 일본어예배  |
| 1136869 | 조은길          | 요셉     | 1136897 | 배준형 | 서초C   | 1136925 | 배정민 | J4U    | 1136960 | NSHIDA TOMOKO  | 일본어예배  |
| 1136870 | 우희균          | 요셉     | 1136898 | 추진경 | 강촌    | 1136926 | 황상현 | J4U    | 1136961 | 지희             | 일본어예배  |
| 1136871 | 원희연          | 요셉     | 1136899 | 김정수 | 부천 믿음 | 1136927 | 이진희 | J4U    | 1136962 | 정유선            | Point5 |
| 1136872 | 강예진          | 요셉     | 1136900 | 최승우 | 푸른누리  | 1136928 | 윤가희 | J4U    | 1136963 | 남미란            | 남양주B   |
| 1136873 | 박유나          | 요셉     | 1136901 | 평택  |       | 1136929 | 김지혜 | J4U    | 1136964 | Disa Clasen    | OEM    |
| 1136874 | 이지향          | 강남B    | 1136902 | 장동규 | 성북    | 1136930 | 오택훈 | 인천 소망  | 1136965 | Priscilla Ruiz | OEM    |
| 1136875 | 김기쁨          | 요셉     | 1136903 | 장진영 | 인천 소망 | 1136931 | 채창병 | 분당A    | 1136966 | Ken Chon       | OEM    |
| 1136876 | 김혜윤          | 요셉     | 1136904 | 방재연 | 부천 믿음 | 1136932 | 최경순 | 분당A    | 1136967 | 김윤호            | OEM    |
| 1136877 | 노정균          | 요셉     | 1136905 | 윤현지 | 양재    | 1136933 | 조소예 | 허브     | 1136968 | 최수희            | OEM    |
| 1136878 | 엄지윤          | 요셉     | 1136906 | 김행근 | 양재    | 1136934 | 권익재 | 허브     |         |                |        |
| 1136879 | 송창혁          | 요셉     | 1136907 | 임희균 | 강남C   | 1136935 | 이서현 | 허브     |         |                |        |
| 1136880 | 박상혁          | 요셉     | 1136908 | 김령희 | 인천 소망 | 1136936 | 최형운 | 허브     |         |                |        |

## ‘교도소사역에 대한 이해와 실체’ 세미나

새사람사역팀에서 ‘교도소사역에 대한 이해와 실체’ 세미나를 9월 3일(화)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개최한다. 여주 소망교도소 김무엘 과장이 강의한다. 교도소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최주관 장로(새사람사역팀 담당)는 “재소자들이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새사람사역에 많은 관심 가져주고, 특히 일대일 양육자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의: 010-4286-0078

## 두란노바이블칼리지 9월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 9월 세미나가 개강한다. 태아학교는 9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두란노서원 빌딩 1층 블레싱홀(용산구 서빙고로65길 38)에서 열린다. 문의: 02-2078-3264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세미나는 9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12만 원. 아이스쿨 2학점이 부여된다. 문의: 02-2078-3279

